



우창원 아우구스티노 신부 | 바보의나눔 사무총장

| 기다림, 만남 그리고 나눔

전례력으로 새해를 시작한 지도 벌써 3주나 흘렀습니다. 지난 한 해는 예기치 못했던 바이러스로 인하여 많은 이들이 어려움을 느끼며, 힘겨운 시간을 보내온 것이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구세주 빨리 오사 어두움을 없이 하며, 동정 마리아에게서 탄생하옵소서”라는 성가 가사처럼 기쁜 마음으로 주님을 기다리고, 서로가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기를 기도해봅니다. 우리는 바로 그렇게 기도하면서 우리의 죄를 뉘우치고, 아름다운 마음 자세로 구세주 오실 날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습니다.

대림 제3주일에는 장미색 제의를 입습니다. 이 제의가 나타내는 색깔의 의미는 엄격한 보속 중에 성탄의 서광을 앞두고 기쁨과 휴식의 의미를 가지는 것입니다. 이처럼 오늘 대림 제3주일을 지내면서 우리는 회개와 속죄를 통하여, 오시는 예수님을 올바르게, 기쁘게 맞이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자 합니다.

그렇다면 과연 어떻게 하면 오시는 그분을 기쁘게 맞이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제1독서를 통하여 들려주시는 “주님께서 나를 보내시어 가난한 이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고 마음이 부서진 이들을 싸매어 주며 잡혀간 이들에게 해방을, 갇힌 이들에게 석방을 선포하게 하셨다”(이사 61,1)는 말씀을 묵상해보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해방과 자유를 주시며 안식처가 되어주시는지, 그분의 오심이 진

정 우리에게 기쁜 소식인지 말입니다.

어떤 분들은 예수님이 실제로 그렇게 느껴지지 않는다고, 때로는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에 대한 성경 말씀이 마치 뜬구름같이 여겨진다고 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어쩌면 우리가 그분을 알아보지 못하고 있는 걸지도 모릅니다. “그분께서는 세상에 계셨고 세상이 그분을 통하여 생겨났지만 세상은 그분을 알아보지 못하였다.”(요한 1,10)

주님께서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도 우리와 늘 함께하십니다. 주님과 만남이 외적으로 반드시 드러나지 않는 것 같더라도 지금 이 순간 여기에,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대림 시기가 특별한 기다림의 시간이긴 하지만, 사실 우리의 기다림은 신앙생활에서 계속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만남도 우리의 신앙생활 안에 계속되고, 반복되는 만남일 것입니다.

오늘은 자선주일입니다. 가장 비천한 이의 모습으로 오시는 예수님을 기다리며, 그분이 우리를 위해 당신 사랑을 ‘올인’하시며 이 세상에 오신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이 보여주신 세상을 향한 ‘사랑의 올인’을 실천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이렇게 세상을 향하여 나눌 때 그 사랑은 더욱 커지고 풍성해질 수 있을 것입니다.



절물자연휴양림, 제주

“땅이 새순을 돋아나게 하고 정원이 싹을 솟아나게 하듯 주 하느님께서 모든 민족들 앞에 의로움과 찬미가 솟아나게 하시리라.”(이사 61,11)



한겨울의 긴 추위와 빙설을 헤치고 복수초가 그 고고한 자태를 드러내면 봄이 가까이 왔음을 깨닫습니다. 하느님께서 가난한 사람들을 구하고 정의로운 시대를 열어놓으려 하십니다. 언 땅에서도 새 싹을 돌게 하듯이 하느님의 의로움과 하느님을 향한 찬미가 모든 민족들에게 널리 펼쳐질 것입니다.

김대한 안드레아 | 가톨릭사진가회